

- ① 시간의 이동 ② 시선의 이동
③ 어조의 전환 ④ 음격의 변화

[정답] ②

6. “수필이 비단이라면, 번쩍거리지 않는 바탕에 약간의 무늬가 있다. 그 무늬는 읽는 사람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한다.”에서 설명하고 있는 수필의 특성은?

- ① 산문의 문학 ② 무형식의 형식
③ 유머, 위트의 문학 ④ 다양한 제재의 문학

[정답] ③

7. 다음에서 표준어인 것은?

- ① 멋쟁이 ② 봉숭화 ③ 삭월세 ④ 깡총깡총

[정답] ①

[8~12]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(71)

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
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
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.

봄 한 철

걱정을 인내한
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.

분분한 낙화

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
지금은 가야 할 때

무성한 녹음과 그리고

머지않아 열매 맺는
가을을 향하여
나의 청춘은 꿀답게 죽는다.

헤어|스|자

섬세한 손길을 흔들며
하롱하롱 ㉠꽃잎이 지는 어느 날

나의 사랑, 나의 결별
샘터에 물 고인 듯 성숙하는
내 영혼의 슬픈 눈.

- 이형기, <낙화> -

(나)

“근년 이래로 노쇠와 병고는 날로 더욱 깊어 가고, 춥고 배고픔은 날로 더욱 핍박하게 되었습니다. 남의 집 결방살이, 간장 한 병의 구걸도 사람들은 용납해 주지 않았고, 수많은 집 문전에서 그의 수치는 무겁기 산더미 같았습니다.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굶주림에 지쳐 있어도 그걸 면하게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. 판국이 이러한데 어느 겨울에 부부간의 애정을 즐기겠습니까? 젊은 얼굴 예쁜 웃음은 풀잎 위의 이슬 같고, 굳고 향기롭던 그 가약(佳約)은 한갓 바람에 날리는 버들가지 같을 뿐입니다. 당신에겐 내가 있어 짐이 되고 나는 당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. 곰곰이 지난날의 즐거움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번뇌로 오르는 계단이었습니다. 당신이나 나나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요? ㉠ 못 새가 모여 있다 함께 굶어 죽기보다는 차라리 짝 없는 ㉡ 난 새가 거울을 향하여 짝을 부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? ㉢ 순경(順境)일 때는 친하고 역경일 때는 버리는 것이 인정상 차마 못할 짓이긴 합니다만, 그러나 가고 머무는 것이 사람의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요, 헤어지고 만남에는 운명이 있습니다. 바라건대 여기서 서로 헤어지도록 합시다.”

- <삼국유사> <조신의 꿈>에서 -

(다)

四月 아니 니저 아으 오실셔 ㉣ 꽃고리새여
므습다 錄事니 넷 나『 닛고신더
아으 動動다리

- <동동(動動)>에서-

(라)

雨歇長堤草色多 비 갠 긴 독에 풀잎이 진한데
送君南浦動悲歌 남포에 ㉤ 뉘 보내니 노랫가락 구슬퍼라.
大同江水何時盡 ㉥ 대동강 물은 언제 마를 것인가?
別淚年年添綠波 해마다 이별의 눈물만 푸른 물결에 더하거니.

8. (가)~(라)의 공통적인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사물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.
- ② 님과의 이별을 안타까워하고 있다.
- ③ 대상에 화자의 감정을 투영하고 있다.
- ④ 자신의 감정을 직서적으로 토로하고 있다.

[정답] ③

9. 꽃과 관련된 분위기가 (가)에서 묘사한 '낙화'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?

- ① 꽃잎이여 그대/다토아 피어/비바람에 뒤설레며/가는 가냘픈 살갗이여(-신석초, <꽃잎 절구>-)
- ② 간밤에 부던 바람 눈서리 치단 말가/낙락장송이 다 기울어지단 말가/하물며 못다 핀 꽃이야 일러 무삼하리오(-유응부-)
- ③ 꽃이 지기로소니/바람을 탓하랴/주렴 밖에 성긴 별이/하나 둘 스러지고/귀촉도 울음 뒤에/머연 산이 다가서다(-조지훈, <낙화>-)
- ④ 간 밤에 부던 바람에 만정도화(滿庭桃花) 다 지거다/아해는 비를 들고 쓸으려 하느구나/낙화인들 꽃이 아니라 쓸어 무삼하리오(-선우협-)

[정답] ③

10. ㉠~㉣ 중, ㉢의 '님'의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?

- ① ㉠ ② ㉡ ③ ㉢ ④ ㉣

[정답] ④

11. ㉢에 나타난 의미와 관련이 있는 것은?

- ① 염량세태(炎凉世態) ② 면종복배(面從腹背)
- ③ 금석지감(今昔之感) ④ 타산지석(他山之石)

[정답] ①

12. ㉢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사건의 인과관계를 도치시켜 서술하고 있다.
- ② 구체적 정서를 추상적인 사물에 이입시키고 있다.
- ③ 실제 지명을 사용하여 사실감을 증폭시키고 있다.
- ④ 인간의 유한한 정서를 무한한 자연에 견주고 있다.

[정답] ②

13. 다음 ㉠, ㉡에는 모두 '늘다'를 원형으로 하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. 풀이를 참고로 하여 ㉠, ㉡에 들어갈 말을 맞춤법에 맞게 쓰시오.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· 고무줄을 (㉠). | * 풀이 : 줄의 길이를 길게 하다. |
| · 수출량을 더 (㉡). | * 풀이 : 수출량을 더 많게 하다. |

[정답] ㉠늘인다 ㉡ 늘린다

14. 다음 시에서 '깃발'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시어를 있는 대로 고르시오.

<p>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. 저 푸른 해원(海原)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.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꺾대 끝에 애수(哀愁)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. 아! 누구인가? 이렇게 슬프고도 애답은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.</p>

- 유치환, <깃발> -

[정답] '아우성'·'손수건'·'순정'·'애수'·'마음'

15.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기본 의도를 쓰시오.

[정답] (한자를 사용하는 지식인보다) 일반 백성들이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